팥죽으로 情 나눈 부산불교계

부산 각지서 동지 '팥죽 나눔'
광명사 · 삼광사 · 천불정사 등
번화가 · 대학가서 팥죽 나누며
전통문화 소개 · 전법의 장 활용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jayanti@hyunbul.com


부산불교계는 동지를 맞아 도심 곳곳에서 팥죽을 나누며 전법활동을 펼쳤다. 사진은 천태종 광명사 주지 춘광 스님이 시민들에게 팥죽을 전달하는 모습.

동지를 맞아 부산에 있는 각 사찰과 신행단체가 팥죽 대중공양을 올리며 시민의 행복과 건강을 기원했다. 특히 사찰에서만 진행해오던 동지행사를 대학가와 전통시장, 번화가에서 펼쳐 시민과 호흡하는 전법의 일환으로 활용해 눈길을 끌었다. 스님과 불자들은 부산 곳곳에서 진행된 동지 팥죽 나눔의 장에서 사찰명이 붙은 팥죽 도시락을 전하거나 주최하는 사찰명을 시민에게 안내하며 포교 방편으로 적극 활용했다.

천태종 광명사(주지 춘광 스님)는 지난해 12월 22일 부산 동래 홈플러스 인근 도로변에서 '광명사 동지 맞이 팥죽 나눔'을 개최했다. 광명사는 경내 지관전에서 동지불공을 올린 뒤 이동해 7000인분의 팥죽과 달력을 시민에게 나눴다. 광명사는 행복한 새해를 기원하면서 시민에게 전법활동을 펼쳤다. 시민들은 팥죽을 받기 위해 추운 날씨에도 줄을 서 기다리며 감사를 전했다. 한파가 몰아치는 날씨에도 광명합창단과 다도회원들이 동참해 훈훈함을 더하고, 건강을 기원하며 만든 생강대추차도 시민들에게 전달했다.

주지 춘광 스님은 "동지를 맞아 지극한 마음으로 팥죽을 끓였다. 시민들이 한 해 마무리를 잘하시길 바라며 내년에는 더 건강하고 바라는 일 모두 원만성취하시길 기원한다"고 축원했다.

천태종 삼광사(주지 영제 스님)도 서면 중심가인 영광도서 앞 광장에서 팥죽을 나누며 건강과 행복을 기원했다. 삼광사 동지팥죽 나눔은 큰 규모를 자랑하며 오랜 기간 진행해 선구자적 역할을 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이번 나눔을 위해 삼광사는 12월 21일 오전부터 새알을 빚고 팥물을 내리며 팥죽을 준비했고, 당일 새벽 1시부터 팥죽을 끓이는 정성을 더해 시민을 맞을 만반의 준비를 기울였다. 삼광사는 팥죽 1만1200인분을 마련했으며, 봉사를 위해 500여 명이 동참했다.

주지 영제 스님은 "동지 팥죽을 나누며 부산시민의 행복을 기원한다"며 "한 해 잘 마무리하시고 밝고 힘차게 새해를 맞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부산 천불정사(회주 고담 스님)는 12월 21일 부산대 정문 일원에서 '동지 팥죽 자비나눔'을 개최했다. 천불정사는 매년 시민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팥죽을 나누며 다가올 새로운 한 해가 건강하고 행복하기를 기원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해 3년 만에 진행된 팥죽 나눔이 반가운 듯 시민들은 발걸음을 멈추고 팥죽을 받았으며, 동지문화가 생소한 대학생들도 의자에 앉아 팥죽을 맛보고 감사를 전했다. 행사에는 회주 고담 스님, 주지 법경 스님, 신희숙 고담나누미 봉사회 회장을 비롯한 봉사회원 20여 명이 동참했다.

조계종 직할포교원 부산 진여원(원장 남순덕)은 12월 21일 북구 구포시장 쌈지공원 일대에서 제24회 동지맞이 팥죽 나눔행사를 진행했다. 진여원은 2500개의 팥죽도시락을 준비해 구포시장을 방문한 시민과 상가주인들에게 나눠주며 따뜻한 새해를 맞이하길 기원했다. 행사에는 남순덕 진여원 원장과 봉사자와 오태원 북구청장, 박용순 구포상인회장 등이 함께했다.


부산포교사단 전진대회에서 발원문을 합송하는 포교사들.

부산포교사단 전진대회 "포교가 곧 수행"

범어사 선문화 교육관서 개최…300여 포교사 참가

조계종 포교사단 부산지역단(단장 송재린, 이하 부산포교사단)이 지난해 12월 16일 범어사 선문화 교육관에서 전진대회를 개최하며 2023년 한 해의 포교활동을 되돌아보고 새해에는 더욱 정진할 것을 다짐했다.

행사에는 범어사 주지 직무대행 정오 스님, 조계종 포교연구실장 문종 스님, 범어사 재무국장 법귀 스님, 포교국장 도림 스님, 홍보국장 벽해 스님을 비롯해 송재린 부산포교사단 지역단장, 강의수 수석부단장 등 330여 명이 동참했다.

송재린 부산지역단장은 "우리는 행복한 포교사가 되기 위해 동안거, 하안거 동안에 34개 팀이 하루도 빠짐없이 〈법화경〉을 독송하고 사찰순례, 열암곡 부처님 바로 세우기 〈금강경〉 독송 기도 등을 실시했다"며 "갑진년에도 수행과 전법, 포교 등 부처님 법을 전하는 데 적극 앞장서 주길 바란다"고 인사했다.

범어사 주지 직무대행 정오 스님은 "일선 포교의 현장에서 몸을 사리지 않고 뛰는 포교사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 찬탄의 박수를 보낸다"며 "포교역량을 결집해 원력과 신심으로 새로운 해를 다짐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 믿는다"고 법문했다.

한편 부산포교사단은 12월 23일 부산 개금3동 철로변 마을에서 '2023년 자비의 쌀 나눔전달식'을 개최했다. 부산포교사단은 기부금 300만원을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했으며 백미 1100㎏을 마련했다. 백미는 개금3동 철로변 인근 거주자 34세대와 경로당에 회향됐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 이도경 부산지사장

쿠무다 미래 비전 '경주 국제명상센터' 건립

개원 10주년 기념식에서 발표
불교명상 세계로 알리기 위해
심장병 어린이 후원금 전달도


쿠무다 개원 10주년 기념식에 참석한 사부대중이 함께 축원을 올리고 있다.

문화예술 사단법인 쿠무다(이사장 주석 스님)가 국제명상센터를 건립하겠다는 새로운 비전을 선포했다.

쿠무다는 지난해 12월 19일 명상문화센터 콘서트홀에서 '쿠무다 개원 10주년 및 명상문화센터 개원 2주년' 기념식을 봉행했다. 이사장 주석 스님은 기념식에서 경주에 국제명상센터를 건립해 불교명상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을 다짐해 이목을 끌었다.

주석 스님은 "쿠무다의 또 다른 원력이자 새로운 비전으로 경주에 국제명상센터 건립을 준비하고 있다"며 "다시 한 번 더 도약하는 계기로 삼고 국제명상센터를 위해 정진하는 모습으로 인사드리고자 한다"고 말했다.

주석 스님은 이어 "문화 포교를 해오면서도 마음으로 고심했던 것은 이에 대한 조율과 수행이었다"고 10주년을 회고한 뒤 "앞으로도 쿠무다는 불교와 문화로 행복한 삶을 선물하는 수행공간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쿠무다는 이날 심장병 어린이 돕기 후원금 1000만원을 한국심장재단에 전달했다. 기금은 매주 수요일에 진행한 이-음 콘세트 수익금과 기관 후원금 등으로 마련했다. 쿠무다는 또 후원을 아끼지 않은 불자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특별공로패는 최삼섭 대원플러스그룹 회장이 받았으며, 감사패는 안경희 개미집 회장,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 에드워드 권 랩24 바이 쿠무다 셰프, 오세룡 담앤북스 대표, 오미숙 경동레미콘 대표, 박창용·김우경·최주영 불자가 받았다.

행사 이후 부산대 졸업생과 대학원생들로 구성된 국악연주자들의 축하공연도 이어졌다. 쿠무다는 부산대 문화예술분야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하고 인재양성에 앞장서왔다.

기념식에는 내빈이 대거 참석해 환영사와 축사로 개원 1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의 행보를 응원했다. 생명나눔실천 부산지역본부장 심산 스님, 혜원정사 주지 원허 스님, 부산전법도량의장 만초 스님, 문경 봉암사 주지 진범 스님, 조계종 중앙종회의원 석산 스님, 미타선원 선원장 하림 스님, 원오사 주지 정관 스님, 홍대선원 선원장 준한 스님, 법주사 수정암 한주 성정 스님, 신명환 대운사 신도회장, 서병수·서범수 국회의원, 장유정 미소원 이사장을 비롯한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사단법인 안국,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수탁

부산진구청과 계약 5년간 운영…"적극 지원" 약속



사단법인 안국(대표이사 수불 스님)과 부산진구청(구청장 김영욱)이 개금종합사회복지관 수탁 계약을 체결하고 지난해 12월 15일부터 5년간 운영에 나섰다. 사단법인 안국은 12월 19일 개금종합사회복지관에서 임시총회와 임시이사회를 개최하고, 복지관 운영을 위해 전폭적으로 지원할 것을 결의했다.〈사진〉

대표이사 수불 스님은 "개금종합사회복지관과 사단법인 안국 구성원 모두 합심해 서원하는 사회복지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힘이 되겠다"며 "복지관을 이용하는 시민과 직원 여러분이 힘들지 않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은 1994년 12월 개관했으며 개관 당시 안국선원의 지원을 바탕으로 시작됐다. 개금종합사회복지관 개관 당시 고 박영태 초대관장이 안국선원 신도부 회장으로 신행 생활을 해 인연을 이어왔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2024 갑진년 부처님 법 전합시다

30 창간 30주년 1994~2024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현대불교

사단법인 대한불교종정협의회
WWW.JONGJEONG.COM

본회는 불타의 회삼귀일의 가르침과 원효대사의 화쟁 사상을 바탕으로하여 한국불교종단 최고 지도자인 각종단 스님들의 모임으로서 불교계의 화합과 발전을 도모하며, 광도중생과 안심입명으로 세계인류평화와 국가 사회의 이바지 하고자함을 목적으로 1995년 4월 15일 창립되었습니다. 그동안 본회는 국가와 겨레를 위한 기원대법회(롯데호텔 크리스탈룸), 동작동 국립현충원에서 위령천도대법회, 일본 관동대지진 한국인희생자 위령대법회(일본관음사), 육군훈련소 호국연무사에서 장병위문 및 보살수계식(논산), 불우이웃돕기 등 수백회의 각종 법회를 국내외에서 봉행해왔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불교계뿐만 아니라 어둡고 그늘진 사회각층에서 국가와 민족을 위해 봉사 할 것입니다.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고문단

대장로 : 석정각 대종사 대한불교선교종(전)종정
석삼중 대종사 대한불교자비종 종정
석의천 대종사 대한불교선희종종정
석혜우 대종사 일광조계종 종정

(사)대한불교종정협의회 법인이사진

대표이사 겸 회장 : 석월인 대종사 (사)대한불교승가종 종정

수석이사 부회장 : 청봉 대종사 (사)대원불교조계종 종정
기획이사 부회장 : 월성 대종사 (사)대한불교교종 종정
재무이사 부회장 : 도우 대종사 대한반야불교조계종 종정
상임이사 부회장 : 정일 대종사 한국불교근본해동종 종정
호법이사 부회장 : 지엄 대종사 통불교화엄종 종정
전법이사 부회장 : 영월 대종사 대한불교법사조계종 종정
섭외이사 부회장 : 보검 대종사 세계불교미륵이안종 종정
행정이사 부회장 : 호암 대종사 대한불교총원효종 종정
종규이사 부회장 : 동봉 대종사 세계불교육조조계종 종정
유나이사 부회장 : 도연 대종사 대한불교성덕종 종정
호계이사 부회장 : 법흥 대종사 (재)세계불교미륵대종 종정
국외이사 부회장 : 월단 명사 용화세계미륵종 종정
차석이사 부회장 : 보안 명사 대한불교일붕조계종 종정
법규이사 부회장 : 정림 대종사 대한불교수미산문조동정종 종정
외호이사 부회장 : 법혜 대종사 금강조계종 종정
외호이사 부회장 : 고산 대종사 세계불교 법사조계종 종정
외호이사 부회장 : 고석 대종사 한국불교 법보조계종 종정
이사 : 혜승 대종사 대선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청운 대종사 대한불교원각조계종 종정
이사 : 해곡 대종사 대한불교열반종 종정
이사 : 일응 대종사 국제불교조계종 종정
이사 : 무각 대종사 대한불교통일조계종 종정
이사 : 지환 대종사 국제불교금륜종 종정
이사 : 혜원 대종사 한국불교선조조계종 종정
이사 : 법휴 대종사 대한불교보리달마종 종정
이사 : 도오 대종사 대한불교묘법연화조계종 종정
이사 : 명암 대종사 대한불교관법조계종 종정
이사 : 옥당 명사 국제상좌부조계종 종정
이사 : 혜능 대종사 대한불교법황종 종정
이사 : 법하 대종사 대한불교신계종 종정
이사 : 도원 대종사 (사)한국불교법사종 종정
이사 : 혜원대종사 한국불교법화종 종정
이사 : 동해 대종사 세계불교일붕종 종정
회장 사서실장 : 삼하 무착
사무총장 : 이붕 서병열 법사
기획실장 : 전성배 법사
사 무 장 : 상광 배영희

■ 법인회관 : 대전광역시 대덕구 동서대로 1748번길 45, 216호 전화 : (042)285-1227
■ 서울사무처 :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6안길 27 미근빌딩 4층 전화 : (02)756-1227 ■ 부경사무처 : 불광사(경남 양산시 주진로 205) 전화 : (055)364-4747